

보도 일시	2022. 1. 12.(수) 09:00	배포 일시	2022. 1. 12.(수)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용섭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배승환 (044-203-2415)

##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콘텐츠 2차 공개, 광화원과 광화인 시민들과 만난다

- 1월 14일부터 경북공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도심 속 매체예술 정원 ‘광화원’,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 개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1월 14일(금) 오후 2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8종 콘텐츠 중 도심 속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과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경북공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개관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수한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화시대’의 첫 번째 콘텐츠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실시간 공연 ‘광화풍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광화원’과 ‘광화인’을 공개한다.

### ‘광화원’, 몰입형 매체예술과 해외 작가 협업 작품 등 선보여

‘광화원’은 도심 속 휴식과 회복의 정원이다. ‘생명의 빛’, ‘소통의 빛’, ‘영원의 빛’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경주와 서울 한강의 실시간 기상상황(바람,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매체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체예술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과 독일 매체 작가 ‘티모 헬거트(Timo Helgert)’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광화인’ 광화문 인근 정보 4개 국어로 안내, 인공지능인간 모델로 ‘샤이니’의 민호, 마리아 등 참여**

‘광화인’은 심층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다. 실존 인물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촬영한 후, 심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3차원(3D) 360°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시각적 모델 영상은 마치 실제 인물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자는 원통 형태의 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한국어 모델로는 그룹 ‘샤이니(SHINee)’의 민호가, 영어 모델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Maria)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광화원’ 동시 관람 최대 10명, ‘광화인’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

**1. 12.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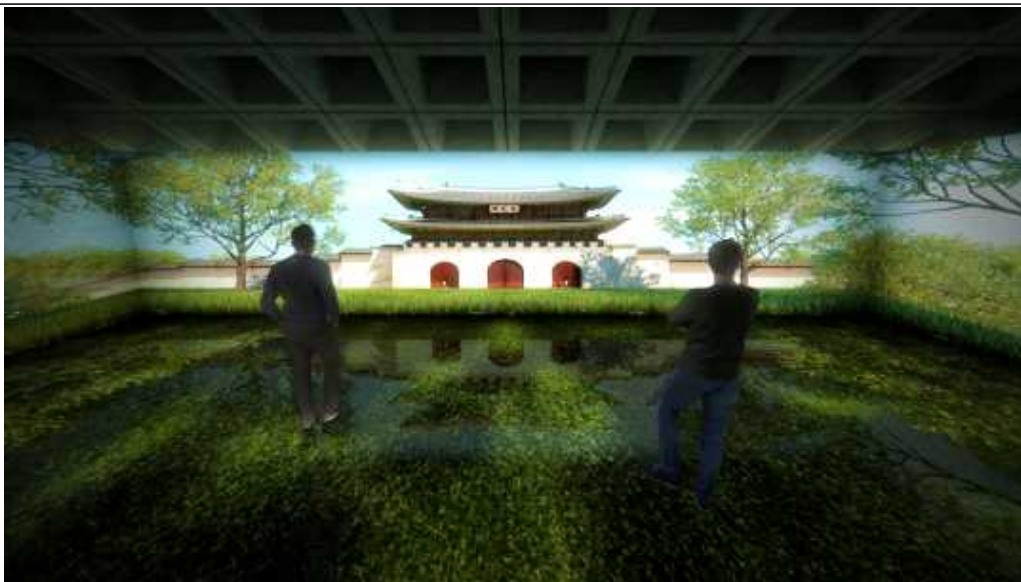
‘광화원’과 ‘광화인’은 개관(1. 14. 오후 2시)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할 수 있다. 사전 관람예약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idae.kr](http://www.gwanghwasidae.kr))에서 받는다. 모든 관람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4. ‘광화시대’ 4종 콘텐츠, 2. 25. 마지막 콘텐츠 공개**

문체부는 이번 2차까지 ‘광화시대’ 콘텐츠 8종 중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월 4일(금)에는 3차로 ‘광화수’, ‘광화경’, ‘광화담’, ‘광화전차’ 등 콘텐츠 4종을 공개하고, 2월 25일(금)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매체캔버스로 구축한 ‘광화벽화’를 마지막 콘텐츠로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 1. ‘광화원’ 이미지  
2. ‘광화원’ 매체예술 8종 세부 내용  
3. ‘광화인’ 이미지





주제	매체예술명	이미지	내용
생명의 빛	시간의 풍경		5G 기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연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휴식을 제공. 경주 안압지의 바람, 하늘, 물, 땅은 그곳의 바람과 기운을 담아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다시 태어나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 밤섬은 무한한 우주에서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재탄생 된다. 5G의 실시간 송출과 스티칭 기술을 활용해 12K 고해상도 영상미를 제공한다.
	새로운 지평I Tetrachromia		유니버설 에브리싱의 해외 협업작품으로 새는 사람보다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색을 볼 수 있다는 지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생생한 색상, 패턴, 음영이 인상적이다.
	새로운 지평II Infinity		2021년 7월, 유튜브에서 2주 동안 실시간 재생한 유니버설 에브리싱의 작품. 디지털 코드에서 탄생한 독특한 크리처들(Creature)의 끊임 없는 행렬은 매일 매순간 영원히 이어져 관람객에게 매번 다른 풍경을 제공한다. * 외벽 송출
소통의 빛	자연 속에 존재하다		독일 티모 헬거트의 작품. 광화문에서 뻗어 나온 자연의 싱그러움 힘이 전 세계의 도시로 퍼져나가며 연결된 하나의 세상을 보여준다. 인도, 프랑스, 미국의 도시를 거쳐 돌아온 세계가 하나의 자연으로 연결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		감정을 담은 언어가 가진 치유의 힘을 타이포그래피로 연출. 아나몰픽(입체) 효과를 통해 아름다운 말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경험한다.
	소리의 풍경		자연의 소리가 풍경을 만들어내고, 소리에 따라 환경이 변한다. 자연 본연의 모습은 점차 물성 자체로 변화해 시각정보를 허물어 소리에 집중된 비움을 실천한다.
영원의 빛	영원한 생명력		빛이 그린 끊임없이 피고 지는 꽃의 생성과 순환의 모습이 음악과 함께 확장되는 정원. 관람객의 움직임은 정원의 생명을 더하는 영원의 빛이 되어 생명을 생성시킨다.

